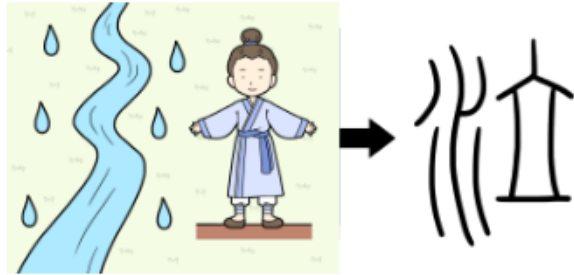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泣

울 음

泣자는 '울다'나 '눈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泣자는 水(물 수)자와 立(설 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立자는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泣자는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사람을 그린 立자에 水자를 더한 것으로 사람이 울고 있음을 표현했다. 그러니 여기에 쓰인 水자는 '눈물'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泣자는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다. 반면 소리 내어 우는 것은 哭(울 곡)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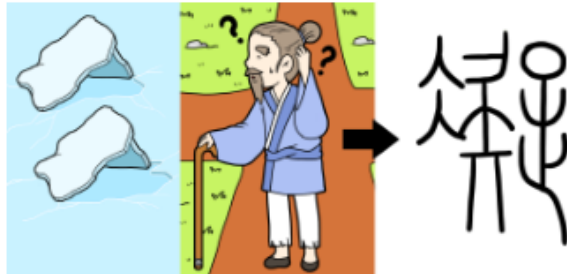
泣

소전

泣

해서

회의문자①



凝

영길 응:

凝자는 '얼기다'나 '얼어붙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凝자는 冫(얼음 빙)자와 疑(의심할 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疑자는 지팡이를 들고 길 가운데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疑자는 길을 찾지 못해 멈추어선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멈추다'나 '한데 뭉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때는 '응'이라고 발음한다. 凝자는 이렇게 '멈추다'나 '한데 뭉치다'라는 뜻을 가진 疑(의심할 의)자에 冫자를 더해 물이 얼어붙는 현상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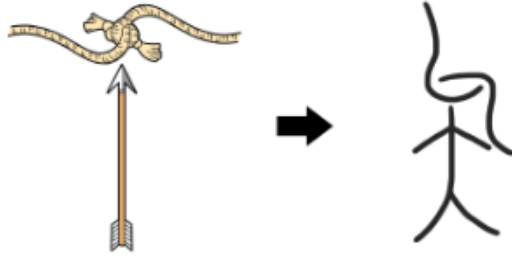
凝

소전

凝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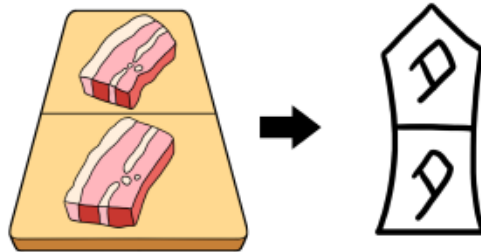
矣

어조사  
의

矣자는 ‘~었다’나, ‘~리라’, ‘~여라’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矣자는 亼(사사 사)자와 矢(화살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矣자를 보면 화살 위로 亼(엷힐 구)자가 그려져 있었다. 亼자가 줄이 엉켜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니 이것은 화살이 날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버린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矣자는 이러한 뜻풀이와는 관계없이 일찌감치 어조사로 가차(假借)되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조사들조차도 지금은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쓰임이 매우 적은 글자이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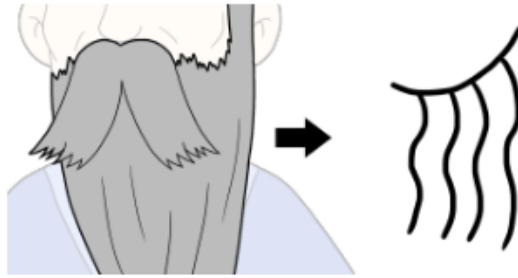
宜

마땅 의

宜자는 ‘마땅하다’나 ‘화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宜자는 宀(집 면)자와 宜(또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宜자는 비석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宜자를 보면 肉(고기 육)자가 豆(콩)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신에게 바칠 음식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宜자의 본래의 의미는 ‘도마’였다. 宜자는 후에 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후에 俎(도마 조)자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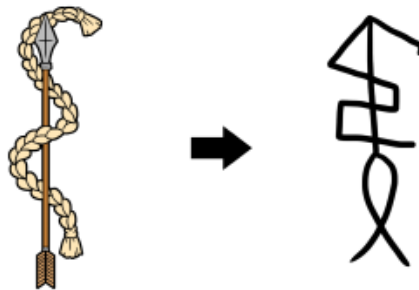
而

말이  
을  
이

而자는 '말을 잇다'나 '자네', '~로서'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而자의 갑골문을 보면 턱 아래에 길게 드리워진 수염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而자는 본래 '턱수염'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지금의 而자는 '자네'나 '그대'처럼 인칭대명사로 쓰이거나 '~으로써'나 '~하면서'와 같은 접속사로 가차(假借)되어 있다. 하지만 而자가 부수 역할을 할 때는 여전히 '턱수염'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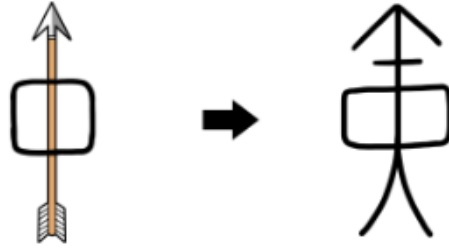
오랑캐  
이

夷자는 '오랑캐'나 '동방종족'을 뜻하는 글자이다. 夷자는 大(클 대)자와 弓(활 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의 夷자는 矢(화살 시)자와 己(자기 기)자가 결합한 형태였다. 여기서 己자는 새끼줄을 뜻하는 것으로 夷자는 화살에 새끼줄이 감겨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夷자는 본래 중국 변방에 거주하던 이민족을 뜻하던 글자였다. 이민족을 뜻하는 글자에 화살과 새끼줄을 그려 넣었던 것은 이들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유목민족들은 활도 잘 쏘았지만 방목한 짐승을 밧줄을 이용해 잡는 것에도 능숙했다. 夷자는 그러한 유목민족의 특징을 묘사한 글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  
-  
217

회의문자①



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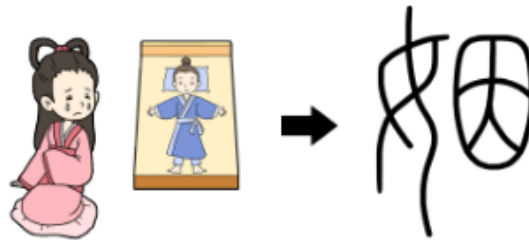
범[虎]/동  
방 인

寅자는 '셋째 지지(地支)'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寅자는 宀(집 면)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寅자의 갑골문을 보면 화살을 그린 矢(화살 시)자 중앙에 네모가 𠂔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갑골문에서의 寅자는 화살이 과녁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寅자의 본래 의미는 '깊다'였다. 화살이 깊이 박혔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문과 소전을 거치면서 모양이 바뀌었고 의미 역시 단순히 12지(支)의 '셋째지 지'를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  
-  
218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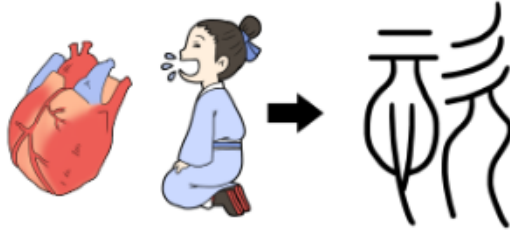
姻

혼인 인

姻자는 '혼인하다'나 '시집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姻자는 女(여자 여)자와 因(인할 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因자는 침대에 대(大)자로 누워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姻자를 자세히 보면 구성이 참 재미있다. 왜냐하면, 姻자의 우측에는 침대에 大(큰 대)자로 뻗어버린 사람이 있고 좌측에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여자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먼저 잠들어버린 신랑과 등을 돌린 신부가 연상된다. 의도는 분명치 않지만 이러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恣

마음대로  
/방자할  
자:

恣자는 '방자하다'나 '제멋대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恣자는 次(버금 차)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次자는 입을 벌려 침을 튀기며 말하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次자가 입을 함부로 놀린다는 의미에서 '마음대로'나 '비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次자가 '버금'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心자를 더한 '恣'자가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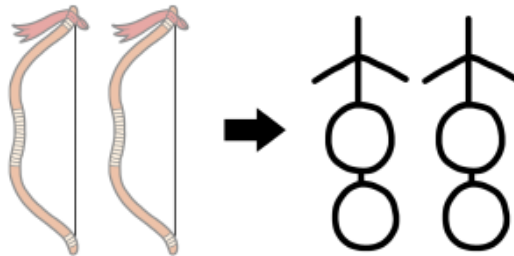
恣

소전

恣

해서

회의문자①



玆

이 자

玆자는 '이에'나 '여기', '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玆자는 玄(검을 현)자가 겹쳐진 모습이다. 玄자는 활시위를 그린 것으로 '검다'라는 뜻이 있다. 玆자는 '이에'나 '여기', '지금'과 같은 다양한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글자의 기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시대에도 간혹 쓰였었기 때문에 관련된 글자도 거의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玆자는 ㅈ(폴 초)자가 들어간 玆(무성할 자)와는 다른 글자라는 점이다. 자주 혼동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玆

소전

玆

해서